코스피 +40.27 (2521.39) | 코스닥 +18.60 (691.45) | 원·달러 환율 -1.40 (1471.50) | 금리(국고채 3년) +0.012 (2.581)

고소득층 '여가' 저소득층 '의식주'…소비 양극화

통계청, 작년 4분기 소비지출 조사

소득 하위 20% 필수 소비 비중 ↑
상위 20% 숙박·교통 등 지출 많아
소득 수준 따라 교육비 격차 3배

장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소득 수준에 따른 지출 양상이 뚜렷하게 나뉘고 있다.

저소득층은 '의식주'와 같은 필수 소비 비중이 높은 반면 고소득층은 여가·문화 등 생활 수준을 높이는 분야에서 지출을 늘리는 등 소득 격차가 지출 구조의 차이로 이어지면서 '소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국(실질) 2인 이상 가구 기준 월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는 지난해 4분기 소비지출 중에서 '식료품·비주류음료' 항목에 가장 많은 비중인 20.4%를 지출했다.

이어 '주거·수도·광열' 부문 소비가 14.8%, '보건'이 14.6%, '의류·신발'이 4.6% 등으로, 식료품을 포함한 네가지 항목의 소비는 전체 소비 지출의 54.4%에 달했다. 의식주 및 질병 치료와 같이 생활의 기본 줄기가 되는 필수 지출이 전체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이외에도 △'음식·숙박' 11% △'교통' 8.4% △'기타상품·서비스' 6.6%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월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식료품·비주류음료(10.6%), 의류·신발(6.6%), 주거·수도·광열(8.3%), 보건(9.2%) 등 네가지 항목의 비중은 전체 소비지출의 34.7%로 집계됐다. 저소득층과 달리 필수 항목의 지출이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고소득층의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음식·숙박(14.7%)'으로, 외식 등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지출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통(12.2%)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는 고가의 자가용 운영 및 기름값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식료품을 포함한 필수 항목을 제외하면 △오락·문화 10.5% △기타상품·서비스 9.3% △교육 8.8% 등이 뒤를 이었다. 교통을 제외한 음식·숙박·문화·교육·서비스 등의 비중은 43.3%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출이 의식주 등의 생활 필수 항목 지출을 넘어선 셈이다.

특히 고소득층 '5분위' 가구의 교육(8.8%) 소비 비중이 저소득층 '1분위' 가구(2.8%)의 약 3배에 달해 교육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분위 가구의 지난해 4분기 소비지출 중 '교육' 항목 소비는 4만7848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무려 21.6% 하락했다. 사교육비 지출 부담 등이 소득 간 교육 비중 격차로 나타난 것이다.

이외에도 1분위 가구에서는 음식·숙박(-1.8%), 기타상품·서비스(-5.8%) 항목의 소비가 하락한 반면, 5분위 가구에서는 같은 항목에서 각각 1.0%, 4.4% 상승했다. 또 고소득층의 오락·문화 소비 비중(10.5%)은 저소득층(5.3%)의 약 2배에 달했다.

고물가·경기침체가 이어지고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은 한정적인 소득과 생활비로 인해 필수적인 지출에 집중하는 반면, 고소득층은 여유로운 삶과 미래를 위한 투자성 소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같은 소비 양극화는 소득 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지난해 4분기 5분위 가구의 월소득은 1072만7718원으로, 1분위 소득(187만7773)의 6배에 달했다. 지난 2014년 동분기에도 5분위(875만8542원)와 1분위(147만3982원)의 소득 수준 차이는 약 6배로, 소득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이벤트'

4~5월 가입시 3만원 쿠폰

중소기업중앙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 5월 두 달간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해당 기간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가입한 신규가입자 전원에게 네이버페이 3만원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망, 노령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에 필요한 퇴직금 제도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와 무등록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다. 납입금액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은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까지다.

사장님의 절세전략으로도 잘 알려진 노란우산은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최대 154만원까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박소영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행정사무지원 직무 총 32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올해 청년인턴 채용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청년인턴은 체험형 인턴 프로그램으로, 실무 체험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돕고자 한다.

모집분야는 행정사무지원 직무로 일반경쟁 30명, 자립준비청년 대상 제한경쟁 2명 등 총 32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근무지는 대전 공단본부, 근무기간은 6개월이다.

지원자격은 성별·학력 제한 없이 임용예정일 기준 만 34세 이하의 청년(1990년 5월 13일 이후 출생자)인 자로, 채용 후 근무지에서 즉시 근무 가능해야 하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단, 자립준비청년 제한경쟁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자립지원대상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서는 이날부터 오는 10일 오후 5시까지 접수 가능하며, 채용 누리집(https://recruit.incruit.com/semas)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한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2단계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5월 12일에 임용될 예정이다.

인턴 수료자에게는 향후 소진공 정규직 채용 시 서류전형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우수인턴으로 선정될 경우 서류전형 이외에 필기·면접전형에도 추가 가점이 주어진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누리집(https://recruit.incruit.com/sema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다운 기자

광주전남중기청,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추진

내달 7일까지 참여 중기 모집
기술개발 과제당 2억원 지원

광주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R&D'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2일부터 5월7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R&D)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 7년 이하(신산업창업 분야의 경우 10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창업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사업공고에서는 창업성장-첫걸음 R&D에 참여할 광주·전남·제주 창업기업 20개사를 모집할 예정이다.

사업을 통해 그간 기술창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과제당 1년간 1억2000만원의 소규모 지원을 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창업기업들의 성과창출을 강화하기 위해 과제당 최대 1년6개월 간 2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선정기업들은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여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보다 가시적인 R&D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지표 내 "지역 특화 평가지표" 항목에 배점 20점을 할당, 지역별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맞는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광주전남중기청에서는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현장에서 민원응대하는 등 기업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순석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직무대리는 "올해에도 창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지역 창업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R&D 지원이 아닌 현장 밀착형으로 지역 스타트업 성장 및 기술창업 저변확대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금호타이어, '휠얼라인먼트 전문 관리사' 자격증 발급

업계 최초 발급 자격 획득
민간 차량정비 전문가 양성

금호타이어가 업계 최초로 '타이어 휠얼라인먼트 전문 관리사' 민간자격증 발급 자격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타이어 휠얼라인먼트 전문관리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된 민간자격증으로, 타이어와 휠얼라인먼트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기관에 구비돼 있는 공구등을 활용해 다양한 타이어 및 휠얼라인먼트 교정 등의 관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자격 획득으로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및 차량 정비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특히 '타이어 휠얼라인먼트 전문 관리사' 자격증은 차량의 안전성과 주행 성능을 높이는 타이어 휠얼라인먼트 분야의 전문성을 인증하는 자격으로, 타이어 및 자동차 정비 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타이어는 해당 자격증을 기반으로 타이어 및 정비 업계의 기술력 강화와 체계적인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화 유통망인 타이어프로의 기술력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며, 이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산업 전반의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송대규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상무는 "금호타이어가 업계 최초로 민간자격증 발급 자격을 획득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교육을 통해 타이어 및 정비 업계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기아가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손잡고 브랜드 최초의 전동화 세단 '더 기아 EV4'와 함께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선보인다. 기아 제공

기아·무신사, 'EV4' 새 라이프스타일 선봬

패션 접목…13일까지 온라인쇼

기아가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손잡고 브랜드 최초의 전동화 세단 '더 기아 EV4'와 함께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EV4랑 무신사랑 스타일링 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SUV 중심의 전기차 시장에서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는 EV4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패션을 접목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

무신사는 방송인 주우재의 화보 콘텐츠를 통해 EV4와 어울리는 패션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는 온라인 쇼케이스를 오는 1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이벤트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EV4 1대와 무신사 4만원 할인 쿠폰을 비롯한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무신사 홈페이지 및 공식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서울 성동구 기아의 브랜드 체험 공간 '기아 언플러그드 그라운드'에서는 오는 4일부터 13일까지 EV4 차량 전시와 주우재와 패션 인플루언서 엘리스펑크의 Work&Life 컨셉 쇼룸, 고객 참여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팝업 전시가 운영될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무신사와의 이번 협업은 EV4가 추구하는 혁신적인 디자인 가치와 패션 트렌드를 융합해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